손흥민, 박지성을 넘다

UEFA 챔스리그 6골 '한국인 최다'
E조 2차전 CSKA 모스크바전 결승골

러시아 모스크바 CSKA 경기장에서 열린 CSKA 모스크바와 토트넘 홋스퍼의 UEFA 챔피언스 리그 E조 경기중에 토트넘의 손흥민이 팬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손흥민의 결승골로 토트넘이 1-0으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손흥민(토트넘)이 CSKA 모스크바(러시아)전 결승 골로 박지성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한국인 최다 골 기록(5골)을 넘어섰다.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의 아레나 CSKA에서 열린 2016-2017 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 조별리그 E조 2차전 CSKA 모스크바 원정전에서 후반 26분 결승골을 터뜨려 팀의 1-0 승리를 이끌었다.

2014-2015시즌 레버쿠젠(독일)에서 활약 당시 UEFA 챔피언스리그 5골을 기록했던 손흥민은 대회 통산 6번째 골 맛을 봤다.

이로써 손흥민은 박지성이 PSV 에인트호번(네덜란드) 시절인 2004-2005년 2골을 넣은 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에서 2008-2009, 2009-2010, 2010-2011 매 시즌 1골씩을 추가하며 총 5골을 넣었던 기록을 뛰어넘었다.

손흥민은 올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만점 활약을 펼쳐왔다.

정규리그 4라운드부터 출전 기회를 잡은 손흥민은 최근 리그 3경기에서 4골을 몰아치며, 3경기 연속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됐다. 스토크시티전에서 2골 1어시스트로 팀의 4-0 대승을 이끌었고, 선덜랜드전에서는 골 없이도 팀 최고 평점을 받을 정도로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 직전 미들즈브러전에서도 2골을 몰아쳤다.

토트넘이 이번 원정에서 해리 케인, 에릭 다이어, 대니 로즈, 무사 뎀벨레, 무사 시소코 등을 부상으로 제외하면서 손흥민이 최우선 공격 카드로 활용됐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24일 리그 미들즈브러전에서 풀타임을 뛰었던 손흥민을 또다시 선발로 내세워 90분을 소화하도록 했다.

포체티노 감독은 이날 최전방 공격수로 내세웠던 빈센트 얀센을 비롯해 델리 알리 등을 후반에 교체하며 변화를 꾀했지만, 손흥민은 교체 대신 왼쪽 측면과 가운데, 오른쪽 등을 오가며 공격 활로를 찾도록 했다. /연합뉴스

KIA 투수 최영필

광주FC 남기일 감독

친구야, 가을 잔치 해야지

KIA 맏형 최영필-광주FC 남기일 감독 필승 각오

KIA 4연패 끊고 5위 수성 중책 맡아
광주FC 상위스플릿 마지막 승부 앞둬
동갑내기 친구·대학 동문·먼 친척 관계

광주를 대표하는 프로 스포츠팀 KIA 타이거즈와 광주 FC의 2016시즌이 막바지로 향해가고 있다. '가을 잔치'를 향한 마지막 고비와 기회를 남겨두고 있는 두 팀. KIA의 맏형 최영필과 광주의 사령탑 남기일 감독, 두 친구가 동반 '가을 잔치'를 그리고 있다.

프로야구 최고참 최영필과 K리그의 젊은 지도자 남기일 감독은 경희대에서 함께 프로 선수의 꿈을 키운 1974년생 동갑내기 친구다. 알고 보면 두 사람은 혈연으로도 엮인 사이다.

최영필은 "대학을 갔는데 어머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 친척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대학 때도 참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였다"고 남기일 감독에 대해 이야기했다.

남기일 감독은 "대학 때 공격수를 했었는데 나는 꾸준히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최영필은 화려한 선수였다. 잘 던지고 제구도 있고 실력 있는 친구였다. 몸관리도 잘했는데 그게 지금의 결과로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야구와 축구에 대한 특별했던 열정으로 오늘에 이른 두 사람은 2016시즌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

KIA는 5년 만의 '가을잔치'를 노리고 있고, 매 시즌 K리그에 역사를 써가고 있는 광주는 첫 상위 스플릿(6강)을 겨냥하고 있다. 최근 두 팀의 분위기는 좋지 않다. 4연승까지 달리며 4위까지 노려봤던 KIA는 4연패에 빠지면서 5위 지키기 비상에 걸렸다. 광주도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며 승승장구했지만 최근 강행군 속에 3경기 연속 무승에 빠져있다. 순위는 8위로 내려왔다.

5경기를 남겨놓은 KIA는 오는 30일 연승으로 분위기를 탄 삼성을 상대로 연패 탈출을 노려야 하고, 광주는 오는 10월2일 FC 서울을 상대로 상·하 스플릿 라운드 결정 전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5위 전남이 승점 2점 차 안에 있기 때문에 서울전 결과에 따라 광주는 목표로 했던 상위 스플릿에서 남은 가을을 뜨겁게 보낼 수도 있다.

지난 시즌 팀의 필승조로 맹활약했던 최영필은 올 시즌에도 불펜에서 듬직한 활약을 해줬다. 최근에는 후배들이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최영필의 경험과 제구는 KIA의 가을에 꼭 필요한 무기다.

남기일 감독은 시민구단 광주를 맡아 매년 도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K리그 첫 강등팀 광주를 극적인 연승쇼와 함께 클래식 무대로 되돌려 놓은 그는 지난해에는 클래식 잔류를 이뤄냈다. 올 시즌에는 넉넉지 않은 팀 상황에도 광주만의 화끈한 축구를 구사하면서 6강까지 노려보고 있다.

2016시즌 결실을 위한 중요한 시간을 앞두고 있는 두 팀의 두 사람. 기분 좋게 고비를 넘기고 또 기회를 잡은 뒤 진하게 소주 한잔 하는 게 두 친구의 바람이다.

최영필은 "가끔 통화도 하고 축구 뉴스도 찾아보면서 광주를 응원하고 있다. 우리 팀도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광주 FC도 좋은 결실 맺고 시즌이 끝난 뒤 친구와 소주 한 잔하고 싶다"고 웃었다.

남기일 감독도 "스플릿 라운드에 앞서 마지막 경기를 남겨두고 있는데 다 쏟아붓겠다. 1년 농사 결과를 앞둔 경기이고 홈에서 하는 경기인 만큼 이겨놓고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최영필은) 늘 잘해왔던 친구도 능력있는 친구다. 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라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KIA와 최영필의 선전을 기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ML 투수들 생각보다 강했다"

박병호 귀국 "연습보다 생각·타격폼 수정할 것"

미국프로야구 진출 첫해 '홍역'을 치른 한국의 홈런왕 박병호(30·미네소타 트윈스)가 28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박병호는 "작년 겨울에 큰 꿈을 꾸고 메이저리그에 도전했다"며 "물론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좋은 경험을 한 것에 만족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전체적으로 많이 아쉬웠다. 생각했던 것보다 상대들이 훨씬 강했다.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많이 부족했다. 확실히 투수가 강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돌아봤다.

메이저리그 투수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평균 구속과 볼 움직임이 다르다. 아무래도 처음 상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소했던 것은 사실이다"며 "연습으로 준비하기보다는 생각을 많이 바꿔야 할 것 같다. 타격 폼도 어느 정도 수정해야 한다. 간결하게 해야 힘 있는 투수들을 상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박병호는 시즌 초반 연착륙하며 한국산 거포의 명성을 떨치는 듯했지만, 결국 빠른 공 공략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진에 빠졌다.

그는 "시즌 초반 홈런이 많이 나왔을 때 조금 더 편하게 생각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메이저리그에서 홈런이 12개 나왔는데, 그 부분은 내년을 준비하는 데 좋을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6월부터는 오른손목 통증이 겹쳤고 결국 7월 2일 마이너리그로 내려갔다. 그리고 8월 25일 오른손 중지 수술을 받아 시즌을 마감했다.

/연합뉴스

'스카우트 심판 매수' 전북 징계 30일 결정

소속 스카우트의 심판 매수 사실이 드러난 K리그 클래식 전북 현대에 대한 징계가 오는 30일 내려진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전북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축구연맹이 뒤늦게 징계에 나선 것은 2013년 심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북 스카우트 차모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차 씨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차 씨가 유죄를 받으면서 전북은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징계는 하부리그 강등, 제재금, 승점감점 등이 있다. 그러나 강등보다는 승점감점과 제재금 등의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축구계는 예상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 대표이사가 나서 K리그 심판을 매수한 혐의를 받은 경남FC 구단이 시즌 승점 10점 감점과 제재금 7000만원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전북에 대한 징계는 올해 K리그의 우승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 전북은 현재 6경기를 남겨놓고 승점 68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2위 FC서울과는 14점차다. 그러나 징계 결과에 따라 서울과 격차는 크게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